

광주 시내버스 오늘 첫차부터 10대 중 6대 멈춰 '비상'

11년만의 파업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11년만에 파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행정당국도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는 등 비상에 걸렸다.

광주지역버스 노동조합은 9일 첫차 운행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시행한다. 조합원 1400여명이 참여하면서 시내버스 640대가 운행을 멈출 예정이다.

◇광주 버스 절반 이상 멈춰=광주 전체 시내버스 1041대(예비 40여대 포함) 중 61.4%의 버스가 멈춰서 있는 것이다.

광주 시내버스의 파업은 지난 2014년 6월 광주 시내버스 583대가 멈춘 뒤 11년 만이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긴급 투입해 시내버스 운행률의 70% 수준인 700대를 목표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기로 했다. 비상수송대책이 전체 운행률의 70% 수준이라는 점에서 출·퇴근, 등·하교길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640대 운행 중단에 출·퇴근·등·하교 차질 등 시민 불편 불가피 시, 운행률 70% 수준 상향 위해 임차 버스 투입 등 예정

광주시는 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비노조 운전원의 피로가 누적되는데 따라 임차 버스를 투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광주시는 도시철도와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운영을 확대하고 자치구, 교육청 등 공공기관, 지역 기업 등과 협력해 등·하교 시간 조정, 출퇴근 유연 근무 확대,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 파업으로 인해 운행이 감소해 변경되는 노선과 시간표는 광주시 버스운영정보시스템과 빛고를 콜센터 120에서 안내 중이다.

또 버스정류소에 시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파업 상황과 시내버스 변경 운행표, 협조요청 사항 등을 게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다. 노조는 시내버스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대화를 통해 일정한 합의점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자치구, 경찰청, 버스업체 등과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노조의 비노조원 버스운행 방해 행위 등을 엄중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5일부터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학사일정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공지했다.

시교육청은 오전 중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자율적 등·하교 시간 조정, 버스 운행 시간 조기 중단에 따른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탄력적 실시, 학생·학부모 안내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했다.

특수학교는 통학버스는 정상 운영하되, 일반 시

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해 별도 등·하교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11년 만에 파업, 왜·노조는 총 8가지를 요구했지만 버스조합 측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금 8.2% 인상(10년차 4호봉 기준으로 32만원)과 정년 연장(61→65세)은 노조와 조합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노조는 자율 교섭을 6차까지 진행한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까지 총 9차례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라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광주시 임금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격차가 심해 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상복 광주지역버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섭이 끝나지 않은 서울과 비교하면 이미 65만원 임금 차이가 나고 서울버스 노조 협상이 이뤄지면 15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창원, 울산과도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광주는 그동안 임금 격차도 문제

인데 올해 임금 인상률마저 저하된 상태이다 보니 다른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 교섭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4.48%로 동일하게 이뤄졌다. 올해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른 지역이 상여금과 재해수당을 시급 전환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과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소비자가물인상률에 따라 4인 가족이 필요한 필수 경비 금액 8.2%를 인상분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임종훈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광주는 대전과 임금이 비슷한 상황이다. 인건비가 70%를 차지해 1700억원이 넘게 든다. 광주시에 1300~1400억원을 지원받는데 5%만 올라가도 100억원 가까이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파업 장기화도 예상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도심 속 생태놀이터 풍경 휴일인 8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생태예술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당분간 '30도 무더위'

9~11일 32도까지 오를 듯

광주·전남 지역에 당분간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진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와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특히 전남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고 예보했다.

9일부터 11일까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5.5~18도, 최고 23.9~28.6도)과 비

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9일 아침최저기온은 17~20도, 낮최고기온은 26~32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일 아침최저기온은 17~20도, 낮최고기온은 26~31도로 오르며 11일에도 아침최저기온 16~20도, 낮최고기온 26~30도로 높은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서 폭염으로 구급차 출동 '역대 최대'

지난해 323건에 292명 이상

6~8월 열탈진·열사병 등 집중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폭염 관련 구급차 출동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남지역 폭염 관련 구급 출동은 총 667건으로 이상 환자는 610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출동 323건, 이상 29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 구급 출동은 6월부터 시작해 7~8월에 85%가 집중됐으며 열탈진과 열사병이 주요 증상이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높고, 남성(62%)이 여성(38%)보다 많았다.

전남소방본부는 온열질환 대응체계를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어지러움·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얼음조끼, 얼음팩, 식염포도당 등 9종의 폭염 대응 장비를 비치해 현장 출동 시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 방법 안내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여름철 폭염 대비 대국민 행동 요령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햇볕 차단과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 등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난해 수능도 'N수생' 강세

광주 수학 성적 학교간 격차 최소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이른바 N수생의 강세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N수생은 고3 재학생보다 국어·수학 평균 점수가 12~13점 높았고, 영어 1등급 비율도 2배 넘게 많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일 공개한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수능에서 N수생으로 일컬어지는 졸업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108.9점으로, 고3 재학생(95.8점)보다 13.1점 높았다.

수학 표준점수 평균 역시 N수생(108.4점)이 고3(96.2점)보다 12.2점 높았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N수생이 9.6%로, 고3(4.7%)의 2배에 달했다. 검정고시 수험생의 1등급 비율은 5.1%로 집

계됐다.

N수생 강세 현상은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래 계속됐다.

학교 소재지별로 보면 대도시 학교의 국어·수학 표준점수 평균(98.6점·98.8점)이 중소도시(95.5점·95.8점), 읍면지역(92.9점·93.6점)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내 학교 간 표준점수 평균 격차를 보면, 국어는 대전(28.6점)이, 수학은 광주(29.7점)가 가장 작았다. 국어는 대전에서, 수학은 광주에서 학교 간 성적 격차가 가장 작았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